* 들리는 대로 그대로 적어주세요.
* 문단구분 대강이나마 해주세요.

오픈소스 전문가, 한양대 에리카 신정규 교수님 모셔봤습니다.

/구근모

Q : 왜 오픈소스가 대세라고 생각하시나요?

A : 사회적 환경의 변화 때문이죠.

Q : 여기서 사회적 환경의 변화라는건 정확히 어떤걸 이야기하시는 건가요?

A : 예전에는 코드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코드를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. 그.. 코드가 자산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고, 근데 지금 와서는 코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

첫째로는 웹 기반의 거대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면서 코드보다는 서비스에 들어있는 컨텐츠나 사람이 실제로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직접 파는 것이 주 수익 모델이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하는게 굉장히 부담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코드 자체보다는 그걸 운영하는 서비스에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번다거나(주로), 주로 큰기업들은 광고로 벌죠.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주 수익 모델은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광고니까. 그런 식 이기 때문에 코드에 의해서 어떤 헤게모니가 /부여된/ 갔어요. 조금. 한단계가 흘렀어요.

두번째로는 코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서비스가 복잡해지고, 아까처럼 그런 규모의 서비스; 서비스 사용자가 막 백 만명, 천 만명이 넘어가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 코드를 개발하는게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. 그리고 버그를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기능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온거죠. 그렇게 때문에 코드를 차라리 공개를 하고 그 코드의 피드백을 받는게 차라리 유리한 시대가 됐습니다.

세번째로는 각 기업들이, 특히 실리콘벨리 쪽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뽑는데, 그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식의 시대가 아니라 보통 일단 숙련된 사람을 뽑아서 바로 실무에 투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자기들 사용하는 테크스텍; 기술적 기반이 같은 사람을 뽑으면 훌련이 덜 필요하겠다로.. 이제 영입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개발한 내부 프레임워크 같은걸 오픈을 해서 사용자를 늘려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회사에 더 기여할 수, 회사에 뽑아서, 입사해서 적응 기간 없기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장점같은 것도 물론 있죠. 그쪽은, 이제 머신러닝 쪽은 주로 그런, 그런 목표를 가자고 공개를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, 그게 가장 큰 변화죠. ‘코드를 쥐고 있어봐야 돈이 안된다.’ 라는 걸 깨닫게 됐고, 물론 그 사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들이 상용보다 더 잘나갔기 때문에, 이제 상대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회사들 보다 오픈소스를 커스터마이스 한 회사들이 잘나가게 된 것도 있죠. //구근모,2:31

Q : 오픈소스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?

A :

Q : 오픈소스로 작업하면서 불편했던 점은?

A :

Q : 참여하셨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?

A :

Q : 오픈소스란 00이다.

A :